국중박 야외 장엄 '고달사지 석등' 환지본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본래 자리를 떠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전시물로 활용되고 있는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보물·사진)'이 본 자리인 고달사지로 돌아가게 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관내 야외정원에서 전시 중인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을 경기도 여주시 고달사지로 현지 이관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9월 9일 밝혔다.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은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석등으로 아래 받침돌 대신 두 마리의 사자를 앉혀놓았다. 쌍사자 석등은 통일신라 시기부터 등장하지만, 사자가 앞발을 들어 위로 윗받침돌을 직접 받치는 일반적인 모습과 달리 웅크려 앉아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뛰어난 조형미를 자랑하는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은 조선시대 고달사가 폐사되며 잊혀졌다. 근대에 이르러 다시 확인됐을 때에는 폐사지에 무너진 상태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문화재 지정에 앞서 석등의 부재를 마을 주민에게 맡겼지만,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다시 잊혀졌다.

그러다가 부재를 맡았던 마을 주민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이 1957년 서울 종로 동원예식장 대표에게 3만 8000원을 받고 팔았다. 그러나 이를 모르던 정부는 1958년 석등을 보물로 지정했고 뒤늦게 석등이 팔린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정부는 석등 회수에 나섰고 1959년 경복궁 경회루 옆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후 석등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이전과 함께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



고려 초기 조성 추정되는 웅크린 모습 쌍사자 석등
지자체, 관계기관 등 협의 보존처리 후 현지 이관키로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장품 현지 이관과 관련해 문화유산의 안전과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면서 "석조문화유산의 현지 이관을 위해서는 △출토지가 확실하고 원위치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관리 △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 명확 △전시 및 관리 안전이 담보 △본래 용도와 기능에 맞추어 원형 그대로 이전 △과학적 정밀조사 선행 등의 선결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은 원위치인 고달사지가 사적으로 지정돼 있어 안전한 공개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보존처리와 과학적 조사·분석이 완료되면 원형 그대로 현지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이 여주 고달사지로 완전 이전되면 향후 관리는 여주시가 맡게 된다. 구체적인 이관 시점은 향후 보존처리와 종합보고서 발간 시점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의 현지 이관은 문화유산의 맥락을 찾는 뜻깊은 일이지만, 동시에 박물관의 보호와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마주함을 의미한다"며 "관리 이관 이후, 국가유산청과 여주시는 석등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선희·이금희 만든 한글 노래 세계로

국제한국어교육재단, 9월 8일 제작 발표회

교육부 함께 세계 교실 보급
MV에 '흥글스' 캐릭터 담아
'아이키' 안무 제작해 보급

한국어를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한 학교는 47개국 2777곳이며 해외 공교육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약 3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을 위해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가수 이선희, 이금희 아나운서와 손잡고 전 세계 한국어 학습 청소년을 위한 한글 노래를 선보였다. 학생들이 노래와 춤으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재단은 교육부와 협력해 전 세계의 학생들과 재외동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 학교 한국어반과 한글학교 수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 영담 스님)은 9월 8일 서울 종로구 재단 사무실에서 한글 노래 '너랑 나랑 다 같이' 뮤직비디오 언론 시사회를 개최했다. 시사회에는 이사장 영담 스님을 비롯해 작사를 맡은 이금희 아나운서와 작곡·노래를 담당한 가수 이선희 씨가 참석해 노래의 제작 과정과 교육 활용 계획 등을 설명했다.

'너랑 나랑 다같이'는 올해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제작됐다.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일상에서 사용하는 낱말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한글 자모의 원리와 한국어의 섬세한 표현을 노랫말에 담았다. 계절과 날씨를 나타내는 여러 낱말을 비롯해 세종대왕부터 방탄소년단(BTS)까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상징하는 소재들도 가사에 포함됐다.

작사를 맡은 이금희 아나운서는 2019년 시작된 재단의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에서 첫 회부터 사회를 맡아 학생과 교사들을 만나왔다. 이번 노래는 이 아나운서의 첫 작사곡이다.

이 아나운서는 "한 가지 색이나 계절도 여러 낱말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한국어는 섬세하고 다양하다. 세종대왕의 뜻처럼 자유롭게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가수 이선희 씨는 가사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하루 만에 곡의 기본 틀을 완성했다.

이 씨는 "제가 평소 부르는 노래와는 차이가 있지만, 이 노래만큼은 경쾌하고 비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한 번 들으면 멜로디를 따라 부르고, 학생들이 게임처럼 가사를 외울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뮤직비디오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의 형태를 활용해 만든 캐릭터 '흥글스'가 등장한다. '흥글스'는 '흥'과 '한글'의 '글'을 결합한 이름으로, 거북·두루미·사슴·호랑이 등 전통문화 속 동물들과 함께 전통 악기를 연주하며 행진한다. 뮤직비디오 연출은 디제이 페기 구의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했던 서인지 작가가 맡았다.

안무는 한국을 대표하는 안무가 아이키가 제작했다. 재단은 별도의 안무 영상을 공개하고 각국 학생들이 직접 노래하고 춤추는 참여형 챌린지로 확산할 계획이다. '흥글스'를 활용한 열쇠고리 등 교육용 굿즈도 제작해 해외 한국어 채택 학교 방문과 교육 행사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영담 스님은 "교육부와 함께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9월 8일 서울 종로구 재단 사무실에서 한글 노래 '너랑 나랑 다같이' 뮤직비디오 언론 시사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사장 영담 스님과 작사를 맡은 이금희 아나운서(왼쪽), 작곡과 노래를 맡은 가수 이선희 씨.

'마인드풀니스' 한계점·극복 방안 논의

대행선연구원 제28회 계절발표회
9월 19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AI 문제 해결 방안 '대행선' 조명

서구에서 개발된 명상치료프로그램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오는 9월 19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28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가을을 맞아 개최하는 이번 발표회에서는 대행선을 조명하는 연구논문과 일반 불교학 분야의 연구논문이 각각 발표된다.

명상상담연구원장 인경 스님은 '마음챙김(Mindfulness) 개념의 한계 극복과 '염지관(念止觀)' 명상: 4대 명상치료 프로그램의 코퍼스 분석을 중심으로'를 통해 상업화된 '마인드풀니스'를 가리키는 이른바 '맥마인드풀니스(McMindfulness)'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띠(sati)'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음을 고찰한다. 인경 스님은 서구에서 개발돼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는 4대 명상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분석하여 비판하고 전체적인 체계로서 '염지관(念止觀)' 명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AI시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행선 사상의 학제적 탐구: 주인공, 한마음, 오공 사상을 중심으로'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 주인공, 한마음, 오공 사상으로 대표되는 대행선 사상을 조명한다.

논평자로는 정문주 원광대 교수, 이필원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이지선 동국대 교수,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맡는다. 신중일 기자

회암사, 고고학·과학으로 조명한다

회암사지博·국립문화유산硏
9월 18일 공동 학술대회

양주 회암사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고고학, 미술사학, 과학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9월 18일 오후 1시 30분 박물관 강당에서 '회암사, 고고·미술·과학의 틀로 바라보다'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영락장식, 소조상, 석조유구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한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주요 논문으로 △회암사지 출토 영락장식의 재질과 제작기법(김소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회암사지 출토 영락장식의 고고·미술사적 검토(성기열,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회암사지 출토 소조상의 재질과 제작기법(장성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두 번의 불-회암사 소조상의 제작과 소멸(심영신, 숭실대) △회암사지 석조유구의 재질 특성과 산지 추정 연구(이명성,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회암사지 문지 구조와 중심축부 석측의 축조양상으로 본 가람 변천(이승현, 건축문헌고고스튜디오)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전익환(경기도박물관), 정성권(단국대), 이명은(경기역사문화유산원), 김지호(국립중앙박물관), 이동식(한국전통문화대학)이 참여한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이번 학술대회는 그간 회암사지에서 발굴된 유적과 유물을 다양한 시선으로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마련됐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

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BONGEUNSA KakaoTalk YouTube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 www.bongeunsa. org |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